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첫 삽’

전주시, 조성사업 착공식 가져…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3억원 투입 새로운 문화 경험의 장 제공

전주시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8일 덕진동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하 △작곡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은 옛 야구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7억 원 등 총사업비 403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7,3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공제작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제전시관 △국내외 우수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획전시실 △물입영상관(5면)이 갖춰지게 된다.

또한 건물 1층에는 매표소와 카페, 2층에는 사무공간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지원실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8일 덕진동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특히 향후 이곳에서는 기존 시각 중심에 머물렀던 미디어 체험을 청각·촉각·후각·미각까지 확장에 오감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몰입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7년 전시관이 개관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 공간으로,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영감

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부지 내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문화시설로, 향후 건립될 전주시립미술관과 더불어 국제회의·전시·관광을 연계하는 MICE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타당성 조사용역과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설계공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왔으며, 전시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3년 조성 예정 부지인 옛 야구장 건물을 철거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아동·청소년 금융 역량 강화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

맞춤형 금융교육 운영… 중·고 학생 대상 첫 프로그램 진행

전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길러 미래 금융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8일 전주중인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는 시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인 ‘함께 금융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전주지역 11개 초·중학교의 20개 학급, 총 4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시와 전곡투자자교육협의회,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협업해 추진하며, 교육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금융 특강과 다양한 금융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생들은 △화폐와 용돈 관리 △저축과 투자 개념 등을 주제로 카드와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금융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중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투자 상식’을 주제로 △금융투자 상품과 회사 알기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이 진행돼 청소년들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상식을 익힐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를 이수한 학교 중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함께 금융인재 바람치’를 운영해 금융투자 테스트와 부스별 금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금융 지식을 체험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2025년 ‘함께금융 아카데미’ 교육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

식’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함께 쌓아가는 금융자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함께 대비하는 노후금융’ △고급 청년을 대상으로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등 맞춤형 금융교육을 운영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체험을 쌓는 것은 미래 자립 경제생활의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 금융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일 전주지역 위기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4차 직업체험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를 진행했다.

위기청소년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멘토와 꿈꾸다’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6일 전주지역 위기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4차 직업체험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이하 '꿈멘토와 꿈꾸다')를 진행했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1388청소년지원단(복지지원단) 소속 업체들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실제 관련 직업을 가진 꿈멘토를 직접 만나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업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바리스타인 문영미 꿈멘토로부터 바리스타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듣고, 평소 궁금했던 바리스타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직접 원두를 고르고 커피를 내려보면서 진로에 대해 체험했다.

이와 관련 복지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함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현재 135개 기관·개인 72명 등 207명으로 구축돼 있다.

센터는 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4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무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전주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해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1388청소년지원단 꿈멘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1388청소년지원단 발굴 및 연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은 “전주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익명의 기부천사, 우아2동에 15번째 따뜻한 마음 전해

8일 오전 10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웅기)에 또다시 따뜻한 발걸음이 찾아왔으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가 ‘열다섯번째 인사드립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35만 원의 성금을 조용히 전하고 돌아갔다.

이번 기부로 누적 성금은 501만 원에 이르렀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꾸준한 나눔은 금액을 넘어선 큰 울림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15번째로 이어진 나눔의 편지에는 “뜨겁던 땀방이 서서히 물러나는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너의 말이

움을 수 있겠구나”라고 귀 기울여 주시길”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계절의 따뜻한 감성과 더불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남겼다.

우아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열다섯 번째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따뜻한 마음이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매번 손 편지 속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가 직원들에게는 힘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기부자의 마음을 존중하여 주민 복지를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